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(배포) 2018. 8. 29(수)
	즉시 사용	
담당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과장 이용석, 서기관 박성렬 (044-200-2123, 2124)

이낙연 국무총리,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계자 오찬 간담회 개최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9일(수) 12시 서울총리공관에서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통일부 및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노고를 격려했습니다.

* (참석) 통일부 천해성 차관/김병대 인도협력국장,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 /우광호 국제남북국장 등 상봉행사 관계자 10인

○ 3년 만에 다시 열린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판문점 선언의 중점과제 이행 차원에서 지난 8월 20일(월)부터 26일(일)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됐고, 총 170가족 833명의 상봉이 이뤄졌습니다.

□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상봉행사에 참가하신 분들의 고령화, 행사 중 태풍 「솔릭」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봉행사가 큰 사고 없이 감동적으로 잘 치뤄진 것은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한 관계자들의 수고 덕분이라며, 상봉행사 관련 애로사항과 특이사항, 그리고 제언을 청취했습니다.

○ 또한, 앞으로도 남북 이산가족 간 전면적인 생사확인, 서신교환, 화상상봉, 고향방문 등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※ (붙임) 1.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요
2. 이산가족 관련 주요 현황 및 통계

참고 1

8.15 계기 21차 상봉행사 개요 및 주요 특징

□ 행사 개요

- 8.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실시(8.20~26, 금강산), 총 170가족 833명 상봉
 - 1회차(8.20~22, 북측 주관) : 89가족 382명(남 197명, 북 185명)
 - 2회차(8.24~26, 남측 주관) : 81가족 451명(남 326명, 북 125명)

※ 회차별 주요일정(총 12시간) :

△(1일차) 단체상봉 → 환영만찬 △(2일차) 개별상봉 → 객실식사 → 단체상봉
 △(3일차)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

□ 우리측 이산가족 특이사항

- 최고령자
 - 방문단(8.20~22, 상봉신청자) 중에서는 101세 1명
 - 상봉단(8.24~26, 북측 신청자의 가족) 중에서는 100세 1명
- 가족관계별 현황

구분		부부	부자·조손	형제·자매	3촌 이상	합계
방문단	인원(명)	0	10	40	39	50
	비율(%)	0.0	11.3	44.9	43.8	56.2
상봉단	인원(명)	0	3	59	19	62
	비율(%)	0.0	3.7	72.8	23.5	76.5

□ 행사 특기사항

- ◆ 전반적으로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상봉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
 → 인도협력 분야에서 「판문점 선언」을 차질없이 이행

- △개별상봉 시간 증가 △동선 최소화 등을 통해 새로운 상봉문화 구현
 - 2일차 객실중식 도입으로 개별상봉 시간이 증가(기존 2시간 → 3시간)
 - * 객실식사를 통해 남북 가족간 자유로운 대화시간을 제공, 다수 이산가족들이 만족감 표시 (70대 남측 상봉자, “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아...”)
 - 주요일정 통합·한 장소에서 세부행사 연이어 진행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 없이, 가족들이 선호하는 개별상봉에 초점을 두고 행사 운영
 - * (기존) · 2일차 개별상봉 후 공동중식 · 3일차 작별상봉 후 개별 중식
 ⇒ (개선) · 2일차 개별상봉 및 객실식사 연이어 진행 · 3일차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 통합
 - 통행검사의 차량내 실시(승하차 최소화) 등 상당수가 고통충인 현실을 감안하여 운영
- 참가자 고통화, 흑서기 행사 개최, 태풍 「솔릭」 내습 등을 고려, 돌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한 상봉행사 진행
 - 의료인력 투입 확대, 화재발생 대비 진압장비·인력 신규투입 등
 - * (의료) · 의료진 기존(20차 행사) 42명 → 46명(+4) · 안내인력 50명 → 67명(+17)
 - * (소방) 소방차량 3대, 화재 진압인력 16명 신규투입
 - 태풍의 한반도 관통 상황에서 속초·금강산 지역의 상봉 관련 시설 사전 안전점검(8.23~24) 실시

참고 2

이산가족 관련 주요 현황 및 통계

□ '00년 이후 당국 차원 교류

- 21차례 상봉행사 및 7차례 화상상봉 실시 → 남북 총 5,187가족 (24,352명) 상봉

구 분	남		북		계	
	건	명	건	명	건	명
대면상봉(21회)	2,216	13,463	2,414	7,141	4,630	20,604
화상상봉(7회)	279	1,767	278	1,981	557	3,748
계	2,495	15,230	2,692	9,122	5,187	24,352

* 별도통계: '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(65가족 : 남 35가족, 북 30가족)

□ 이산가족 현황

- 정부는 「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」을 통해 이산가족 현황을 파악
 - * 수시로 신청을 받고, 행안부 전산망과 연계하여 생사여부 자동 갱신
- ⇒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총 132,696명 ('18.8.27 현재)
 - 신청자 중 △75,994명 사망(57.3%) △56,702명 생존(42.7%)으로 사망자가 생존자를 초과
 - * '18.8.27까지 이산가족 3,434명 사망(최근 5년 연평균 3,591명 사망)
 - 생존자 중 70대 이상 고령자가 85.1%를 차지하며,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81.0세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 심화

구 분	90세이상	89-80세	79-70세	69-60세	59세이하	계
인원수(명)	12,018	23,327	12,749	4,556	4,052	56,702
비율(%)	21.2	41.4	22.5	8.0	6.9	100

* 생존자 평균 연령 81.0세